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덕산네오룩스(213420)

반도체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이호수 전문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9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네오룩스(213420)

저전력, 장수명의 OLED 소재 개발 선두주자

기업정보(2022/03/07 기준)

대표자	이준호/이수훈
설립일자	2014년 12월 31일
상장일자	2015년 02월 06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주요제품	반도체 OLED 유기재료

시세정보(2022/03/07 기준)

현재가(원)	39,900
액면가(원)	200
시가총액(억 원)	9,095
발행주식수	24,831,179
52주 최고가(원)	76,200
52주 최저가(원)	36,750
외국인지분율	9.74%
주요주주	덕산하이메탈(주)

■ OLED 발광 소재 제조 업체

덕산네오룩스(이하 동사)는 2014년 설립되어 2015년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 덕산하이메탈(주)로부터 인적분할 방식으로 신설된 법인이며, OLED 유기물 재료 및 반도체 공정용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동사는 OLED 유기재료 제품군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블랙 PDL 등 비발광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 연구개발과 투자로 차세대 핵심소재 개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 재료 개발을 통한 OLED 경쟁력 강화

동사 주요 제품은 OLED의 발광구조 소재 중 양극에서 정공을 운반하는 정공수송층인 HTL, 발광과 발색 역할을 하는 EML의 Red Host, 발광층을 보호해주는 Prime Layer인 R Prime, G Prime, B Prime 등이며 합성, 정제, 성형의 공정을 통해 유기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OLED의 단점인 짧은 수명과 낮은 발광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정공수송층 재료 개발, 삼중항 전자를 이용하는 인광 Host 재료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원재료 구매능력과 높은 수율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블랙 PDL 개발로 폴더블폰 상용화에 기여

2021년 3분기부터 비발광 범용소재인 블랙 PDL을 자체개발하여 첫 공급을 개시했다. 블랙 PDL은 빛을 흡수하는 편광판 대신 블랙 PDL로 무편광 기술을 적용 가능하며, 기존 구조에서 두께가 얇아져 폴더블 제품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각 RGB 사이의 빛이 교차하는 것을 차단하며, 시인성을 높여 발광효율이 20% 이상 향상되고, 소비전력 또한 25%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동사의 블랙 PDL은 삼성 갤럭시 Z폴드3에 적용되어 빛투과율을 높여 소비전력을 절감하고, UDC 기술 구현에 기여하는 등, 폴더블폰 상용화를 통해 기술을 검증받았으며, OLED 소재 시장뿐만 아니라 비발광 소재 분야에서도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907	(9.7)	203	22.4	188	20.7	14.3	12.2	13.7	784	5,872	18.12	2
2029	979	7.9	208	21.2	192	19.6	12.7	11.2	13.4	798	6,663	32.96	4
2020	1,442	47.3	401	27.8	333	23.1	18.9	16.6	14.6	1,389	8,030	25.09	4

기업경쟁력

OLED 유기소재 개발 및 제조

- **OLED 유기 소재 국산화**
 - 해외에 의존하던 OLED 핵심구성요소인 유기재료 국산화 성공
- **OLED 수요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능력 보유**
 - 제품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대를 위해 설비 개선을 지속

OLED 소재 시장의 제품 다변화를 주도

- **R&D 투자로 OLED 원천기술 개발**
 - HTL > Red Host > Red Prime > Green Prime > Blue Prime 순으로 제품다변화를 주도하며 소재 개발 및 양산시설 투자를 통해 시장 선점
- **비발광 범용소재 개발로 사업 영역 확대**
 - 비발광 범용소재인 블랙 PDL 개발 및 양산
 - 폴더블폰 상용화로 기술 검증

핵심기술 및 취급 품목

핵심기술

- **OLED 단점 개선을 위한 재료 개발**
 - OLED의 짧은 수명과 낮은 발광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정공수송층 재료 개발, 삼중항 전자를 이용하는 인광 Host 재료 개발
- **블랙 PDL 개발 및 상용화**
 - 편광판 없이 반사방지 기능을 수행하여 시인성 및 발광효율 향상, 두께 감소

주요 제품 및 생산공정

- 합성, 정제, 성형 공정을 통해 OLED 소재 생산



ESG 현황

Environment

항목	현황
환경 정보 공개	■
환경 경영 조직 설치	▣
환경 교육 수준	▣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용수 사용	▣
신재생 에너지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Social

항목	현황
인권보호 정책 보유	▣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	■
사회공헌 프로그램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Governance

항목	현황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
종장기 배당정책 보유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유	▣
대표-이사회 독립성	▣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 업무 교육 실시	▣
지배구조 정보 공개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 환경 경영 조직을 설치하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용수 사용 관리를 하고 있으나 환경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 당사는 친환경적인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경영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무재해, 무사고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을 수행하고 있음.
 > 이사회 내 3명의 이사 중 1명의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본 ESG현황은 나이스평가정보평가 분석대상 기업으로 입수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분석 시점 및 기업의 형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OLED 소재 세계 선두기업

덕산네오룩스는 OLED 발광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블랙 PDL 비발광 신소재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 연구개발과 투자로 차세대 핵심소재 개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 개요 및 사업 현황

덕산네오룩스(이하 동사)는 2014년 12월 설립되어 2015년 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금속소재 사업 부문과 화학소재 사업 부문을 영위하던 덕산하이메탈(주)로부터 인적분할 방식으로 신설된 법인이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본사를 두고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물 재료와 반도체 공정용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동사의 2021년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총 23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동사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덕산하이메탈로 동사의 지분 37.92%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는 이준호 대표이사로 16.69%의 지분을 보유하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주주의 소유지분은 56.99%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OLED 소재 개발 및 양산업체로 OLED 산업의 핵심인 유기재료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HTL(Hole Transport Layer)과 Red Host, R Prime, G Prime, B Prime을 양산 납품 중이며, 최근 블랙 PDL(Pixel Define Layer)이라는 비발광 신소재를 개발하여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3에 적용되었으며, 소재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동사의 주요제품(유기재료)의 적용 분야



*출처: 동사 IR 자료(2021년 3분기)

■ 보유기술 및 주요제품 현황

동사는 OLED 재료 설계 및 합성기술 및 고순도 정제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수요에 기술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OLED 핵심 소재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레드발광층, 레드보조층, 그린보조층, 정공수송층을 주력으로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 중으로 품질 안정성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2021년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동사의 OLED 사업 부문 생산 가동률은 96.9%로 합성 설비 5ton/mon, 정제 설비 2.5ton/mon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OLED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를 개선하고 있다.

동사는 코스닥에 상장한 2015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사로 채택되어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OLED의 단점인 짧은 수명과 낮은 발광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정공수송층 재료 개발, 삼중항 전자를 이용하는 인광 Host 재료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3분기부터 비발광 범용소재인 블랙 PDL을 자체개발하여 첫 공급을 개시했으며 향후 OLED 제품의 적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림 2. 동사 생산 설비(합성 설비(좌), 정제 설비(우))



*출처: 동사 IR 자료(2021년 3분기),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는 설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Flexible QD-OLED용 Inkjet Printing 소재/부품/장비개발’ 및 ‘고효율 장수명 특성을 갖는 전계발광 QLED용 소재 소자 및 공정원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과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표 1].

표 1. 동사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명	연구실적	개발기간
Flexible QD-OLED용 Inkjet Printing 소재/부품/장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D bank용 소재개발 목표달성 ■ 특허출원 1건 	2020.06.01 ~2022.12.31
고효율 및 장수명 특성을 갖는 전계발광 QLED용 소재 소자 및 공정원천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카드뮴 녹색 QD 소재개발 목표 달성 ■ 특허 출원 2건 	2020.04.01 ~2024.12.31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제품/서비스의 고객 확보 현황

동사의 OLED 재료 매출은 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기타 해외업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사에서 발주를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시장 외에도 일본, 대만, 중국 등 해외 패널업체를 공략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목표시장 및 경쟁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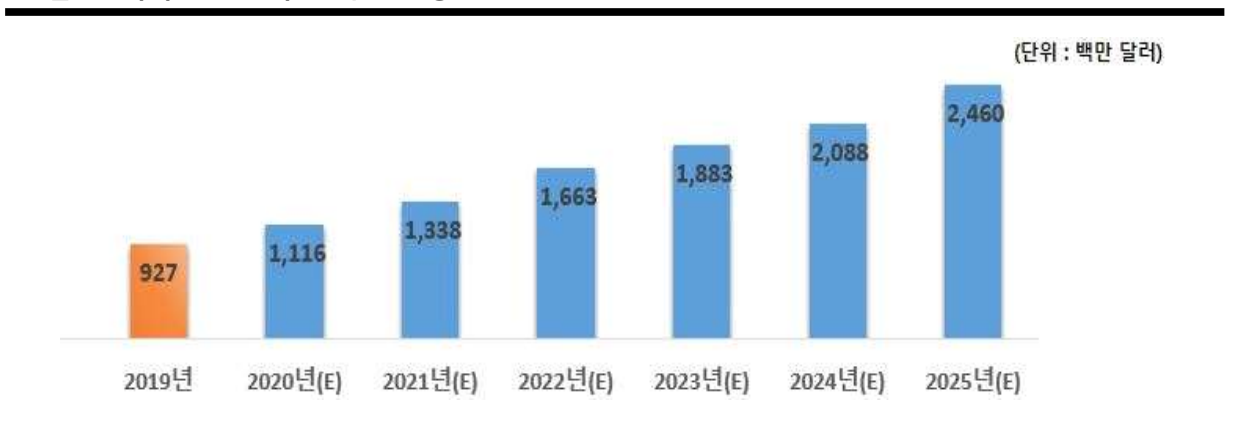
OLED 시장 초창기엔 OLED 소재 관련 핵심 원천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았으나, 동사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양산 대응을 통해 OLED 소재의 국산화를 이루어 현재는 한국이 OLED 디스플레이 인프라 및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OLED 재료 구조의 경우,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빠르게 개발, 발전하고 있으며, 상향 평준화된 핵심 기술력 및 양산능력, 소재 특허 구축, 점진적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한정되어 적용되던 OLED 패널이 최근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탑재되고 있으며, 각종 핸드셋의 OLED 패널 탑재율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한국이 기술 및 양산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글로벌 패널 제조사들도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을 가속하여 양산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의 OLED 개발과 생산능력 또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급성장하는 OLED 소재 시장의 제품 다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원재료 구매능력과 높은 수율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기존 특허 분석, 연구개발 방향 설정 및 집중을 통해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3. 세계 OLED 재료 매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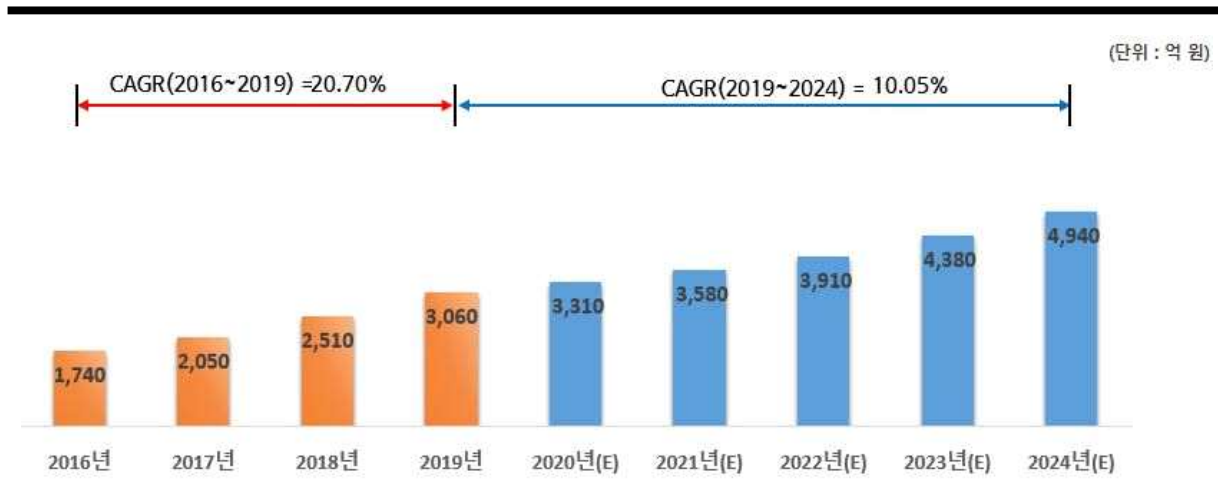


*출처: DSCC,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기술사업 분석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변화의 주기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LCD는 CRT에 비해 두께가 얇고 가벼워 이동성의 확보가 쉽고 소비전력이 낮은 장점이 있어, LCD의 개발 이후 디스플레이 산업 시장은 CRT에서 LCD로 급속도로 대체되었다. 평판디스플레이 중 OLED는 2009년부터 소형 AMOLED 패널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중소형 핸드셋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OLED는 BLU(Black Light, Unit)가 필요 없는 자발광 디스플레이 소자로 Flexible 제품 및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가능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으며, OLED 디스플레이 적용제품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4. 세계 OLED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출처: DSCC,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최근 유수의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OLED 패널을 사용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중저가형 스마트폰까지 탑재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이후 게임기, 태블릿, 노트북 등 중소형 디스플레이에서 중형 및 대형 디스플레이까지 OLED 패널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OLED의 유기재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OLED 산업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OLED 디스플레이 개발 및 양산은 한국이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많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가 OLED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II. 재무 분석

OLED 소재 시장의 선두주자로 성장세 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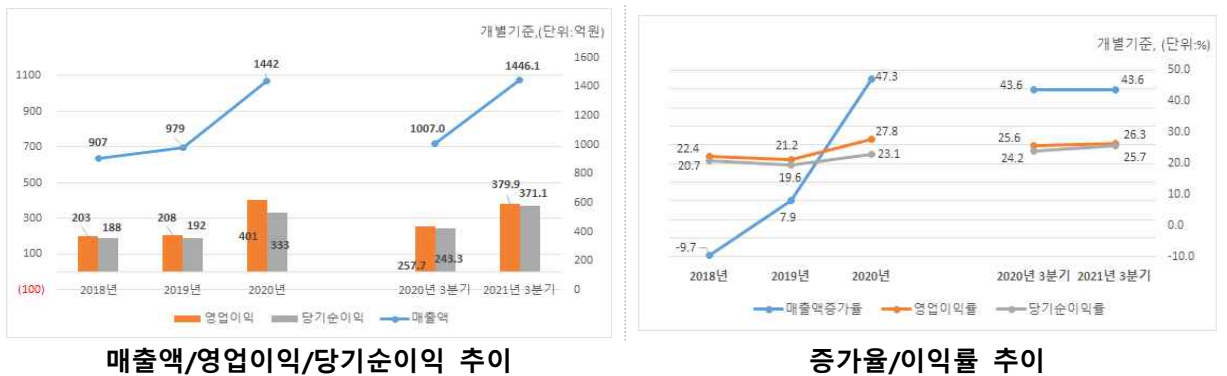
동사는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OLED 소재 부문에서 확고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우수한 현금흐름과 재무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상황 변동과 우발적 재무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OLED 시장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 지속

동사는 2020년 개별 결산기준 고객사의 OLED 소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7.3% 성장한 1,44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판매 경로별로 살펴보면 수출 매출이 1,242억 원(+42.0% YoY)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기여했다. 내수 매출도 200억 원(+91.5% YoY)으로 크게 호전되며 실적 성장을 뒷받침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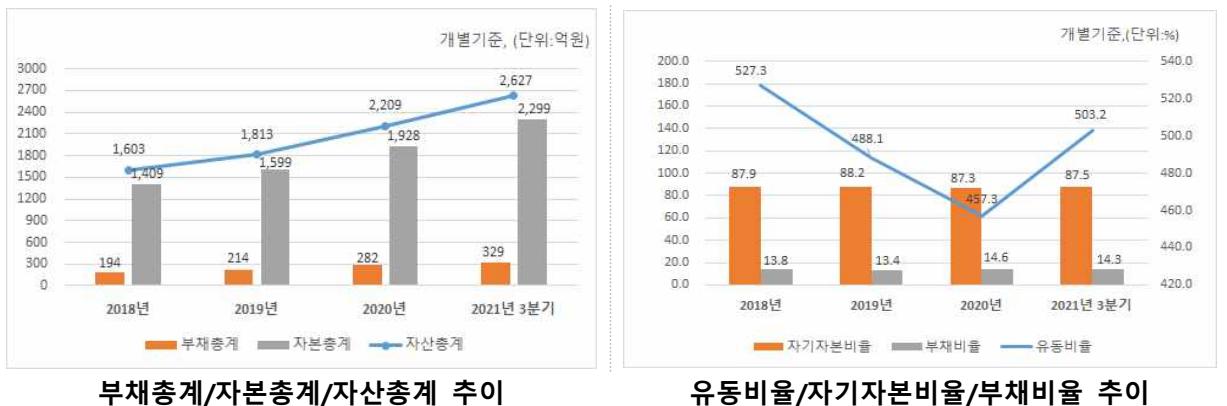
OLED 디바이스 시장 활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 역시 1,446억 원(+43.6% YoY)으로 호조세가 이어졌다. 동사는 해외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 확대 노력으로 수출 매출만 1,233억 원(+44.0% YoY)을 기록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5.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3분기보고서(2021)

그림 6.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3분기보고서(2021)

■ **업계 대비 우수한 수익성 및 재무구조 견지**

최근 3개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2020년이 27.8%, 2019년 21.2%, 2018년 22.4%로 동종업계 대비 우수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 3분기 영업이익률도 26.3%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NICE 산업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4-5%를 웃돌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수출비중이 높은 동사는 환리스크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환헷지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당기 매출액순이익률은 23.1%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수익성은 동업계 대비 우수한 수준을 견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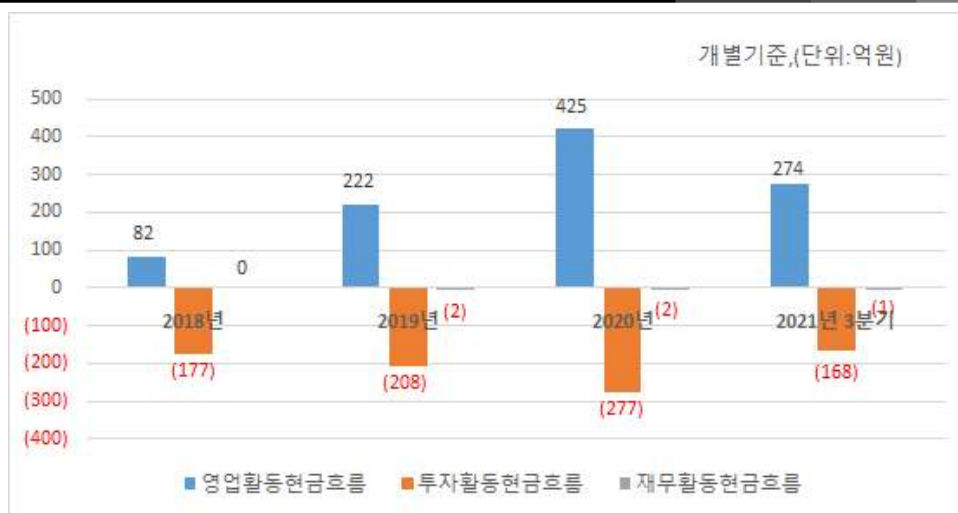
■ **안정적인 재무기반과 우량한 자본력 보유**

2021년 3분기 말 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14.3%, 자기자본비율 87.5%, 차입금의존도 0.5%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동사는 금융부채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상거래 매입채무를 비롯한 전반적인 부채 부담이 매우 낮아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다. 유동비율은 2021년 3분기 말 503.2%, 2020년 말 457.3%로 NICE 산업평균 150.2%를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을 유지했다. 동사의 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623억 원으로 부채총계 329억 원을 전액 상환하고도 충분한 수준의 자본력을 보여주었다.

■ **우수한 영업현금을 기반으로 자금흐름 선순환 지속**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8년이 82억 원, 2019년 222억 원, 2020년 425억 원, 2021년 3분기 274억 원으로 매년 확대되는 모습이다. 영업활동 창출현금은 설비자산과 R&D 활동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잉여 자금의 상당 부분은 내부로 유보하고 있다. 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623억 원으로 기초 506억 원 대비 증가하여 우수한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되었다.

그림 7.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3분기보고서(2021)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블랙 PDL 개발로 Flexible 디스플레이 상용화에 기여

동사는 2021년 3분기부터 비발광 범용소재인 블랙 PDL을 자체개발하여 삼성 폴더블폰에 첫 공급을 개시했으며, 무편광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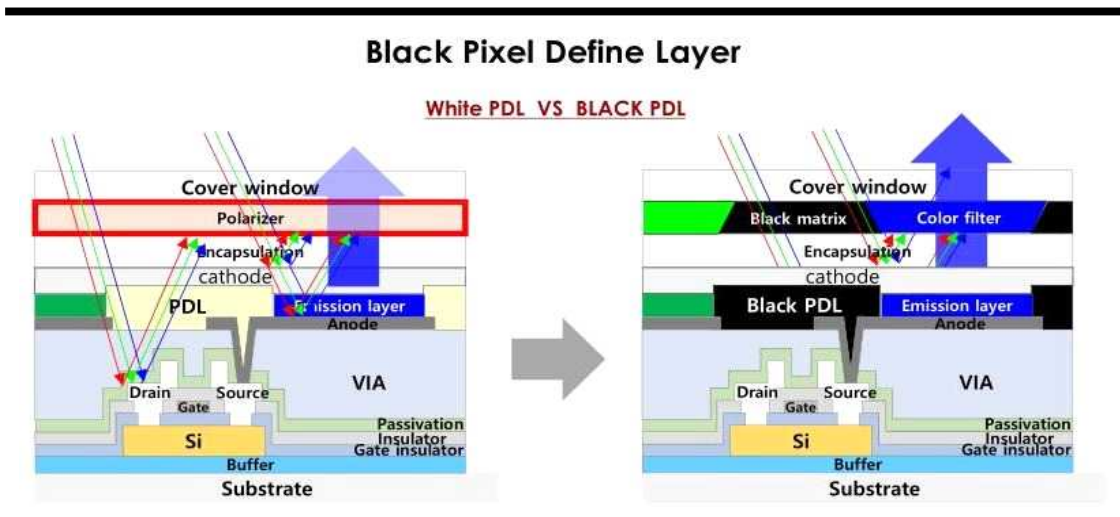
■ 주요 사업 이슈

편광판은 반사방지 역할을 하지만 OLED의 발광효율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사는 블랙 PDL이라고 불리는 격벽 소재를 개발했다.

PDL은 OLED패널에서 유기물발광층(EML)이 각 서브픽셀(Sub-Pixel)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구분해주는 층(Layer)으로, 유기발광물질의 증착이 이루어지기 전, 각 서브픽셀의 증착 영역 이외 부분에 형성되어 편광판 대신 반사방지 기능을 한다.

동사가 개발한 블랙 PDL은 편광판이 필요 없는 Pol-less tech를 구현 가능하며, 기존 구조에서 두께가 얇아져 폴더블 제품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각 RGB 사이의 빛이 교차하는 것을 차단하며, 시인성을 높여 발광효율이 20% 이상 향상되고, 소비전력 또한 25% 이상 절감할 수 있다.

그림 8. 블랙 PDL의 원리



*출처: 동사 IR 자료(2021년 3분기)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존의 투명 PDL 대신 동사의 블랙 PDL을 갤럭시 Z폴드3에 적용함으로써 OLED 패널의 빛 투과율을 33% 높여 소비전력을 최대 25%까지 절감했고, UDC(Under Display Camera, 패널 뒷면에 카메라를 배치) 기술 구현에도 기여했다. 이처럼 동사의 블랙 PDL은 폴더블폰 상용화를 통해 기술을 검증받았으며, 무편광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 기술에 대한 전망

OLED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LCD처럼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아 두께와 무게를 LCD의 1/3로 줄일 수 있고 폼팩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Curved, Bendable, Foldable, Wearable, Rollable 등 다양한 기기의 Flexible 디스플레이로 적용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OLED는 감성화면 구현, 고속 응답속도, 자발광, 초박형 제작 가능, 저전력 소모, 넓은 시야각, 명암비 등 뛰어난 특징으로 인해 중소형 스마트폰에서는 600ppi 이상의 고해상도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다. AR/VR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생생한 화질 구현을 위한 고해상도(1000ppi 이상) 수준의 제품이 요구되고 있으며, 10cm 이하의 가까운 시야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장시간 몰입이 가능하도록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한 AR/VR용 화소 소재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동사 또한 유기재료연구소 내 재료설계 및 합성/소자 평가 개발 인프라를 보유하고 고해상도 구현을 위한 재료를 개발 중이다.

■ ESG 활동 현황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이나 비즈니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비재무적 요소이다. ESG 평가는 기업에게 지속 가능 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QESG, 대신경제연구소, NICE평가정보 등이 있다.

그림 9. ESG 등급 평가지표



*출처: NICE평가정보(주)(2022)

NICE평가정보에서 ESG를 평가할 시, ESG 평가 성과분석 매트릭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방식은 중요도-성과 분석을 의미한다. 성과분석 매트릭스는 기업에 중요한 ESG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성과 요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4분면은 개선의 시급성 수준과 투자역량에 대한 성과 달성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그림 7]는 NICE평가정보에서 ESG 평가 시, 활용하는 성과분석 예시이다.

그림 10. NICE평가정보의 ESG 평가 성과분석(예시)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현재 각 기관마다 차별화된 ESG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2)에서는 S, A+, A, B+, B, C, D 등 7등급의 평가등급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NICE평가정보(2022)에서도 ESG1 - ESG7 등 7등급의 평가등급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 코스닥 상장사의 등급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평가등급에는 배합사료의 제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코스닥 상장사의 등급이 제시되어 있다.

표 2.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 분야 기업 ESG 등급 현황

기업명	기업코드	ESG 등급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년도
덕산네오룩스	213420	D	D	C	C	2021
이녹스첨단소재	272290	B	B	D	B+	2021
PI첨단소재	178920	B+	B+	B	B+	2021
솔루스첨단소재	336370	B	D	B	B+	2021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는 홈페이지(www.dsneolux.co.kr)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회 공헌, 윤리경영, 안전보건정책에 관해 소개된 동사의 ESG 전략은 아래와 같다.

▶ 환경

동사는 환경 경영 조직을 설치하고 환경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용수사용 절감 부문 계획 수립, 집계 분석 등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무재해, 무질병 사업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안전보건 개선활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립, 자율 책임안전보건관리 실천, 상시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안전보건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동사는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및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확인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

동사는 인권/노동 관련 정책을 수립 및 보유하고 있어 근로자의 채용,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234명의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는 50명, 기간제 근로자는 16명으로 확인된다.

표 3.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현황

사업 부문	성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계
OLED 사업 부문	남	170	14	184
	여	48	2	50
합계		218	16	234

*출처: 동사 3분기 사업보고서(2021년 9월),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는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지역 자선단체 정기 후원활동,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지역 문화, 행사 후원 등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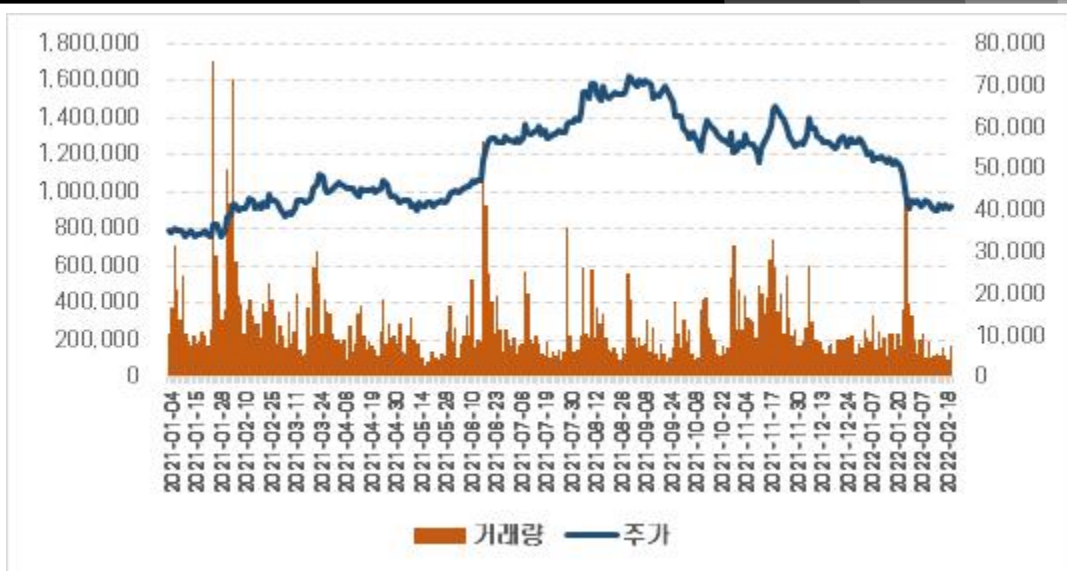
동사는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가 있으며, 중장기 배당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총 3명의 이사 중 1명의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사내이사는 상시 관리하는 후보군 중 전문성과 리더십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외이사는 동사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력이 풍부하되 회사나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동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근 감사를 두어 독립적인 이사업무 감독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이베스트 투자증권	Buy(maintain)	60,000원	2022.0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4Q21 실적 기대치 하회 예상. 주요 고객사의 연말재고 조정 및 삼성디스플레이 QD OLED 패널 수율 부진에 따른 제한적 물량 증가가 원인으로 파악됨 1Q22 실적도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 따라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2.03)